

외식브랜드 '온리핸즈' 첫발 내딛다

전북대학교-산업체 협력 육류 요리전문점 설립 지역 구도심 개발 청신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의 연구 성과로 탄생한 육류와 맥주 브랜드를 활용한 융·복합 외식 브랜드가 국내 대학 최초로 문을 열고 사업화에 돌입했다.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인문대 교수, 그리고 전북 지역 농산업체가 참여해 설립한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이사장 이학교)이 전주 구도심인 일명 '격리단지' 인근에 전북 로컬 푸드인 수제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 '온리핸즈(Only HANDS·전주시 전주객사길 100)'를 설립한 것.

지역 브랜드 육성과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전북대와 지역 산업체가 손을 맞잡은 첫 사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이남호 총장과 유희숙 전북도청 경제산업국장, 김기평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국장, 유남희 전북사회경제포럼 이사장, 장성용 두지포크 대표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전북대 교수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온리핸즈'는 전북대 동물분자유전



전북대학교와 지역산업체가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온리핸즈'를 설립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육종사업단 연구 기반의 지역 축산 브랜드인 '두지포크'와 새만금 보리를 이용한 수제 맥주인 '전주 크래프트'가 결합한 외식 브랜드다.

사업단의 농생명공학 연구 결과로 탄생한 돼지고기 브랜드 두지포크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를 가축뿐만 아니라 농장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이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매일 100여 마리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자란 3無(무항생제, 무호

르몬제, 무소독제) 고급 돈육으로, 온리핸즈는 이 돼지고기를 활용한 고급 돼지고기 요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새만금에서 수확된 보리를 이용해 전통주 방식으로 빚어 만든 고품질 수제맥주로 전라적으로 참여했다.

전북대 농생대와 인문대 교수 17명과 전북지역 농산업체가 참여해 대학과 지역이 진정한 융·복합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식품·외식·문화 사업을 영위하여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 구도심을 개발과 청년 학생들의 취·창업 기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남호 총장은 "지역 브랜드 육성과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해 교수와 지역산업체가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첫발을 내딛은 '온리핸즈'가 10호점, 100호점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전북대의 새로운 브랜드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농생명 산학협력·국제화 교류 물꼬

전북대 - 우크라이나·몰도바 주요 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주요 대학들과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실�크로드 라인 국가들과의 농생명 산학협력 및 국제화의 교류 물꼬를 텄다.

지난 9일과 10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주요명문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대학인 세브첸코 국립대학, 우주항공산업 분야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키예프공과대학, 우크라이나 최대 국립농대인 키예프환경생명과학대학과 최대곡작지역인 키로보그라드 국립농대의 MOU를 체결했다.

이들 대학을 방문한 대표단은 전북대의 우수한 농생명, 공학, 수의학, 인문학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들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문은 이양구 주 우크라이나 대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이 대사는 앞으로 전북대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과학, 공학기술과 농생명 산업발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생명산업분야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지역의 한국형 융복합 농생명 단지 개발 협력에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주문했다.

또한 11일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원장 유상범)에서 몰도바 울라대학 교과의 MOU를 체결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자율학교 위원 위촉

분야별 전문가 6명·임기2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3일 오전 5층 접견실에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연임하는 김용연(원주삼우초 학부모), 진태희(변호사), 임은미(전북대 교수), 김근수(한국전통문화고 교사), 신규 위원으로 윤복진(전민일보 기자), 길인옥(이리여고 교장) 등 6명이다.

/정해은 기자

이들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까지 2년이다.

위촉식 후에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제1차 심의회를 가졌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과장, 행정과장 4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자율학교, 자사고 등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에는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40교 등 총 103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수능 당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전주시,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 지각우려 수험생 긴급 수송 등 안전입실 총력 지원

전주시가 2018학년도 대입 수능능력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 전주지역 22개 학교에서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도로가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교사 등의 차량으로 뒤얽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능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날 교통대책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함께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까지 시험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날 22개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지도 인력이 편성돼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입·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반경 2km이내의 주요 간선도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2대의 차량을 이용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긴급 수송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실 편의를 위해 수능당일 오전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에 운행되는 개인택시는 총 2,339대로, 시는 전주시 개인택시 단

위조합의 협조를 얻어 수능 당일 휴무하는 717대의 부제를 일시 해제해 운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는 버스를 이용해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일 당일 오전 결행 및 지연운행이 없도록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5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수능일 아침 시험장 주변은 수험생 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우회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험당일 아침 수험생 먼저 태워 주기와 승용차 함께 타기 등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도내 중국 유학생 단합

전북대서 체육대회 개최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주말 가을 낭만이 가득한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체육활동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유학생지원센터, 중국주광주총영사관이 함께 마련한 제7회 전라북도 중국인 유학생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전북대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것.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전북지역 5개 대학에서 3백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농구와 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종목들 통해 어울림 한마당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각 유학생들의 장기자랑 무대도 마련돼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전북대 중국인유학생회장이 양박 학생(경영학부 3년)은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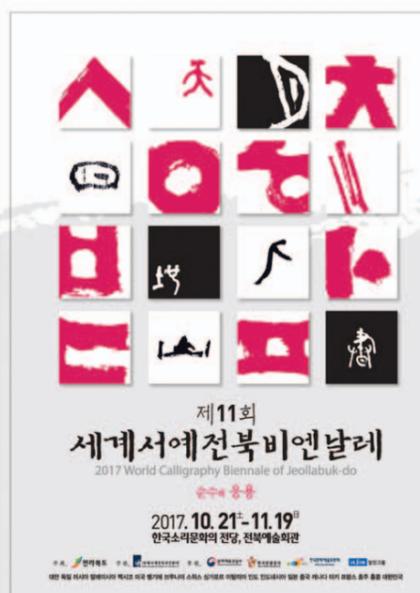
/정해은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실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갤러리 S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갤러리 O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탁본체험	갤러리 R (로비)	
나도 서예가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갤러리 R	
전, 서각의 어울림전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아외전시	
등불서예전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윤전		

주최 전라북도 |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